



25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경남 합천지역 시민단체가 5·18단체와 함께 전두환씨 친양 중당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는 합천에서 전씨 아호를 딴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윤석열 망언’에 광주 찾은 경남 합천 시민단체

## “전두환 만행 대신 사과드립니다”

#### 국민의힘에 합당한 조치 촉구

전두환(90)씨의 고향 경남 합천지역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전씨에 대한 옹호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군민운동본부’(운동본부)와 ‘전두환적폐청산경남운동본부’는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발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합당한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전두환 역사청산을 위해 광주방문을 진행했다. 오전 11시에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영령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은 지역출신으로서 전씨의 만행을 사과했다

이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

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내용의 망언과 관련해 전씨의 흔적 지우기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합천에서 5·18기념식이 열린 만큼 내년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광주와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강제징 운동본부 대표는 “우리는 전두환 고향인 합천 주민들을 대표해 전씨의 만행을 대신 사죄드리기 위해 왔다”면서 “전씨 추종세력의 부활을 막고, 전씨의 잔재 청산을 위해 광주시민이 연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법은 이미 발의가 됐지만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면서 “합천 주민들이 야당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 5·18정신의 전국 계승을 만들어 가고, 이를 위해 5·18기념식을 합천과 공동 개최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합천 일해공원

명칭변경 운동과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반대 운동에 광주시민이 연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은 알박한 역사관과 전박한 정치철학을 드러내며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뽕뽕하게 내뿜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윤 후보를 두둔했다”면서 “5·18주모제 참여 등 그동안의 국민의 힘 행보는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호남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성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씨 옹호가 국민의힘 입장에 위배된다는 것을 소속 정치인에게 공표하고 모든 공직선거 후보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합천 일해공원 등 전씨를 칭송하는 모든 시설과 상징물을 철거해 앞장서고, 전씨가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도록 관련 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단체는 광주시민들에게 전씨의 만행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 주면서 연대를 요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중학교 ‘자유학기제’ 축소되고 고교 일반선택 ‘경제’ 빠지나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차기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다음 달 공개되는 가운데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개정안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경제’가 제외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교육 과정 전반에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축소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중학교 1학년 1-2학기에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170시간 이상 진로 탐색 시간을 갖는 제도다.

이שמ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은 “자유학기 운영 시기를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로 학기 단위로 바꾸고 운영 시수를 현재 170시간에서 학기당 102시간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고, 특히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과군별로 선택 과목 수를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과목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현행 고교 사회과목의 일반 선택과목은 총 9과목(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한국지리·세계지리·동아시아사·세계사·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이다. 일반 선택과목에서 배제된 과목은 진로선택과목이나 융합선택과목으로 배치되는 학생들이 쉽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일반선택으로 남고 수능 응시율이 낮은 ‘경제’나 ‘정치와 법’이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새 교육 과정은 다음 달 총론이 공개된 후 교과 교육 과정 시안 개발 연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고시된다. 초·중·고 학교 현장에는 2024년,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교육 과정은 지난 2015년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 간담회

#### 시민단체 오늘 간담회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25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시민환경연구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 남구청은 26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단체들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자립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구

가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광주 남구 2030 그린에너지자립도시 기본계획과 남구 태양광 입지 잠재력 파악 및 적용 모델 안, 도시 재생에너지 시민인식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수원지역에서 운영 중인 협동조합 형태의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청소년 90% “5·18 가짜뉴스 인식 못해”

#### 5·18 인식조사

전국의 청소년들이 대부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업을 받았지만, ‘5·18인지도’는 지난해에 비해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사회 이슈에 관심이 높을수록 5·18 가짜뉴스에 노출이 큰 만큼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등 학생 1105명을 상대로 한 ‘2021년 5·18 인식조사-청소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 결과, 청소년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가장 역사적인 사건(52.2%)으로 꼽았다. 숭불혁명 15.3%, 4·19 혁명 9.8%, 제주 4·3 사건 7.2% 등이 뒤를 이었다.

5·18가짜뉴스에 대해서는 10.9%의 청소년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뉴스

는 유튜브로 접한 경우가 32.5%로 가장 많았고 TV 20.8%,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 20.0%, 포털사이트 15.8% 순이었다.

또 청소년 응답자의 77.7%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왜곡하는 사람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61.6%가 5·18 가짜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데 반해 청소년은 10%에 불과하다”며 “청소년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5·18 교육과 미디어 식별능력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병원, 국가결핵관리 평가 ‘최우수’

조선대병원이 최근 열린 ‘2021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조선대병원은 2017년·2018년 2년 연속 우수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최우수병원으로 뽑혀 결핵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결핵환자 및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통해 철저한 환자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은 민간 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해 결핵환자를 관리하여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18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조선대병원은 접촉자 검진 비용, 신환자 신고 건수, 신약 신청 건수 등 결핵관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호흡기내과 윤성호 교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최우수병원으로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결핵관리 및 치료율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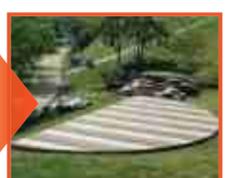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